

2019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 캐나다 밴쿠버 출장자료

## 【 목 차 】

I. 현지 체류 정보 .....	1
II. 캐나다 경제 동향 .....	3
III. 한·캐 교류 현황 .....	9
IV. 캐나다 서부 개황 .....	12
V. 2019 시장 포커스 .....	16
[별첨] 현지 체류 참고자료 .....	19



# I. 현지 체류 정보

## 1. 밴쿠버 기후

- 밴쿠버의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한해 평균 강우량은 1283mm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12월 평균 강우량이 높음

## 2. 체류 유의사항

###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일교차에 대비 얇은 긴소매와 외투 준비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차림(양복바지,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음식

- 밴쿠버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이 있음.
- 이외에도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국식품 supermarket(H-mart : 590 Robson Street)이 있어 컵라면 등 한국식품은 쉽게 구입 가능

### 시차

- 한국표준시간 KST -16시간 (썸머타임 기간)
  - 밴쿠버 3월 12일 오후 5시 = 한국시간 3월 13일 오전 9시
  - \* 썸머타임(+1시간)적용: 3월 12일(日) ~ 11월 4일(토)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 Hz)
- 플러그 adaptor 휴대 필요(오른쪽 그림 참조)



### 치안

- 밴쿠버 다운타운은 비교적 안전하나, 도심 동쪽지역은 슬럼가로 Homeless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주의 요함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 서비스 구입 시 12%의 세금 (주정부세 7%, 연방세 5%)이 별도로 부가됨. 식당 이용시, 세금 포함된 요금의 10-15% 수준의 팁이 일반적임. 6-8명 이상 단체손님 이용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부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역서를 확인할 필요 있음.

**현금사용**

- 신용카드는 대부분 통용되나, 비상시를 대비 현금 보유 필요

**3. 입국 비자**

1994년 한-캐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6개월 미만은 무비자 방문 가능

- 2016년 11월 10일부터 항공편 입국시 온라인 입국허가(eTA) 취득 필요 (캐\$7 소요)
- 입국 심사시 입국목적, 체류기간, 휴대품(샘플 등)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4. 주요 연락처**

**밴쿠버무역관**

- 주 소 :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 화 : +1-604-683-1820 / 팩 스 : +1-604-687-6249
- 이메일 : [ktc@kotrayvr.com](mailto:ktc@kotrayvr.com)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 1-604-681-9581 / 팩스 : 1-604-681-4864



## II. 캐나다 경제 동향

### 1. 국가 개요

<b>국 가 명</b>	캐나다 (CANADA)
<b>수 도</b>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b>면 적</b>	9,984,670 km <sup>2</sup> (세계 2위, 한반도 45배)
<b>기 후</b>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b>인 구</b>	3,714만명 (2019.1월)
<b>연방구성</b>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b>주요도시</b>	Toronto(606만 명), Montreal(403만 명), Vancouver(247만 명), Ottawa (132만 명), Calgary (141만 명), Edmonton (133만), Quebec City (80만) 등
<b>언 어</b>	이중 공용어 (영어 58% 및 불어 22%)
<b>민 족</b>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아,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b>종 교</b>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b>국 체</b>	입헌군주국 (영연방)
<b>정 체</b>	의원내각제 (양원제)
<b>화 폐</b>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6 USD)
<b>건국(독립)일</b>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b>국가원수 (실권자)</b>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Julie Payette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17.7월 (임기 5년+)
	○ 수상: Justin Trudeau (실권자) ○ 취임일: 2015.11.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2. 최근 경제 개황

### □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GDP	USD	1.560조	1.536조	1.652조	1.685조
1인당 GDP	USD	43,470	42,412	45,070	45,368
실질경제성장률	%	1.0	1.4	3.0	2.0
물가상승률	%	1.1	1.4	1.6	1.8
실업률	%	6.9	7.0	6.3	5.2
대미환율	CAD/USD	0.78	0.77	0.77	0.76
수출	USD	4,098억	3,902억	4,210억	4,503억
수입	USD	4,194억	4,026억	4,321억	4,598억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NBC 보고서

### □ 2019년 경제 동향

- (경제성장) 캐나다 '19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1.5%(IMF 경제전망 보고서)
  - IMF는 7월, 올해 캐나다 GDP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치(2.0%)에서 1.5%로 하향 조정
  - (요인분석) ①美-中 무역마찰 ②지정학적 긴장고조에 따른 유가불안 ③기업투자 및 소비지출 둔화

〈IMF 경제전망보고서(2019.7)〉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캐나다	1.9%	1.5%	1.9%

자료원: IMF 경제전망 보고서

- (금리) 캐나다 '18년 하반기 이후 물가오름세 주춤, '19년 상반기 금리 동결
  - (금리 현황) 1.75%(2019년 7월 현재) → 2018년 10월 이후 9개월째 고정
  - (향후 전망)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교역 불확실성, 물가상승률 둔화, 주택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2019년 추가 금리인상 전망 불투명
- (대미환율) 캐나다, 美 보다 금리인상 속도 느려 장기적으로 루니(loonie) 가치 상승에 부담
  - 단, 상품/서비스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 수출증가 및 관광업 성장에 기여 전망



### 3. 캐나다 대외 무역

#### □ 수출입 동향

○ 수출호조세 힘입어 무역적자 큰 폭 감소

- (무역규모) 전년比 6.7% 증가한 9,100만 달러(수출 7.0%↑, 수입 6.4%↑)

- (무역수지) 무역적자 전년比 15.7%(17억 9천만 달러) 감소한 95억 7천만 달러

#### < 캐나다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

(단위: US\$백만)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출	409,820	390,059	420,701	450,314
수입	419,271	402,498	432,058	459,884
무역수지	-9,451	-12,439	-11,357	-9,570

자료원: Trade Data Online

#### □ 국가별 현황

○ 주요 무역 대상국, ①미국 ②중국 ③멕시코 ④독일 ⑤일본 ⑥한국 등임

- (대美 무역) 대美 무역 흑자, 전년比 2.6% 감소한 951억 달러

- (대韓 무역) 대韓 무역 적자, 전년比 9.1% 증가한 27억 6,900만 달러

####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

(단위: US\$백만)

수출				수입			
국가명	2016	2017	2018	국가명	2016	2017	2018
미국	297,529	319,086	337,883	미국	209,990	222,025	235,121
중국	15,830	18,182	21,335	중국	48,597	54,620	58,319
영국	12,905	13,626	12,602	멕시코	25,041	27,331	28,412
일본	8,092	9,111	9,993	독일	12,999	13,809	14,709
멕시코	5,763	6,047	6,340	일본	11,924	13,493	12,997
한국	3,304	4,083	4,525	한국	8,002	6,622	7,294
독일	3,068	3,185	3,724	영국	6,232	6,856	7,104
네덜란드	2,146	2,419	3,660	이탈리아	5,690	6,277	6,946
인도	3,006	3,294	3,287	프랑스	4,477	4,768	5,545
홍콩	1,762	1,722	3,014	대만	3,832	4,190	4,536
기타	36,654	358,672	43,951	기타	65,714	72,351	78,901
수출총계	390,059	420,660	450,314	수입총계	402,498	432,342	459,88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 품목별 수출입

- 캐나다 주요 수출입 품목, 에너지(원유, 정유, LPG), 자동차, 의약품, 항공기, 금
  - (주요 수출품) 원유(23.8%), 의약품(30.5%), 항공기(7%) 수출 증가  
승용차(-11.8%), 금(-7.2%), LPG(-4.0%) 수출 감소
  - (주요 수입품) 정유(37.2%), 항공기 부품(21.7%), 전화기(9.2%) 수입 증가  
자동차 부품(-1.7%), 화물차(-11.4%), 금(-11.9%) 수입 감소
- 오일(원유, 정유)은 캐나다의 최대 수출품인 동시에 최대 수입품
  -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미의존도(92%)가 절대적  
※ 美 수출비중: 원유(99%), 정유(95%), 천연가스(100%)
  -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도 제1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국임  
※ 美 수입량 중 차지비중: 원유(43%), 정유(29%), 천연가스(97%)

###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1	2709	원유	54,007	66,878	23.8	8703	승용차	28,579	29,937	4.8	
2	8703	승용차	46,451	40,978	-11.8	8708	자동차부품	20,513	20,162	-1.7	
3	7108	금	13,204	12,251	-7.2	2710	정유(석유)	12,284	16,853	37.2	
4	2710	정유(석유)	11,324	12,201	7.7	2709	원유	12,777	14,946	17.0	
5	8708	자동차부품	10,448	11,346	8.6	8704	화물차	15,853	14,042	-11.4	
6	2711	LPG	10,174	9,771	-4.0	8517	전화기	10,184	11,121	9.2	
7	4407	제재목	8,332	8,241	-1.1	8471	광학기기부품	8,553	9,326	9.0	
8	3004	의약품	5,116	6,678	30.5	3004	의약품	7,160	7,639	6.7	
9	8411	항공기 부품	5,832	6,609	13.3	8411	항공기 부품	4,645	5,651	21.7	
10	8802	항공기	6,078	6,505	7.0	7108	금	5,479	4,827	-11.9	
합계			170,966	181,458	6.1	합계			126,027	134,504	6.7

주: HS 코드 4단위 기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4. 캐나다 시장특성

###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 지역별 산업 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지역	GDP 비중	주요산업 및 특성
동부	온타리오, 퀘벡	약72%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기업 본사 소재
서부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약28%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광업, 임업, 서비스업 * AB,SK주: 광업, 농식품업

###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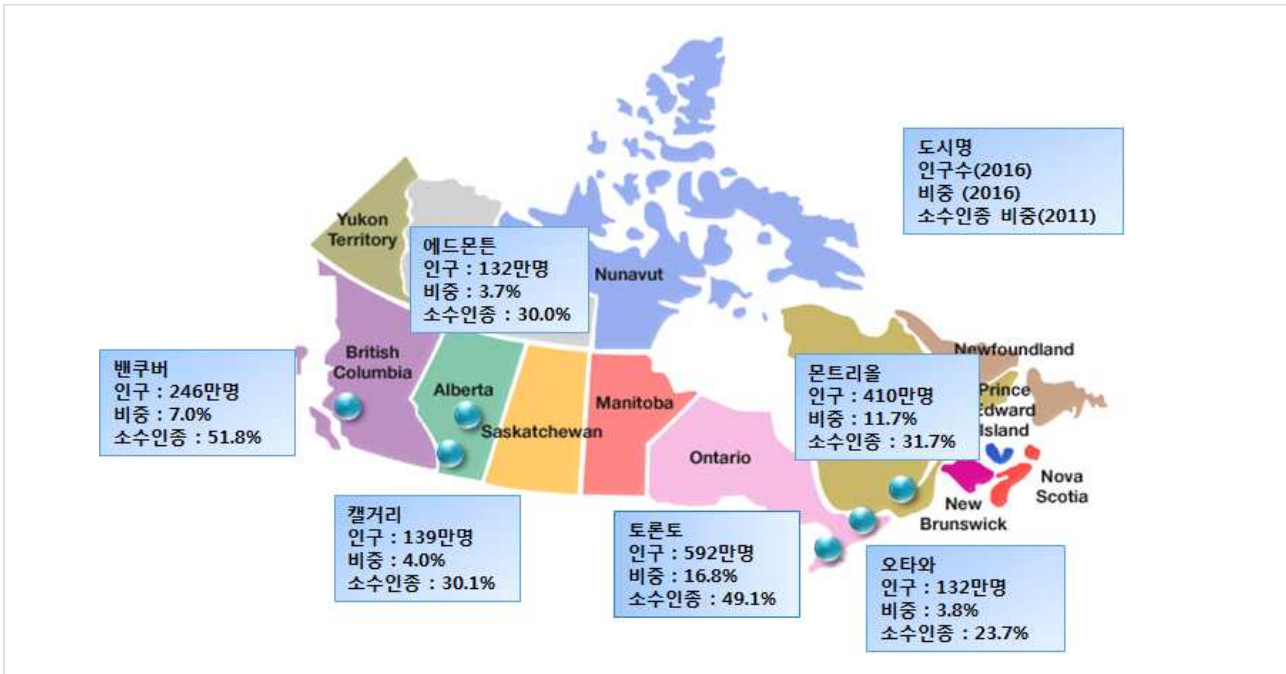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 전체 교역량의 약 66% 차지 (수출 77%, 수입 54%)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며 다른 국가제품들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 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 아시안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주의(multi-culturalism)사회로 민족별 특성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민족 간 소비패턴이 상이함
  - 오랜 이민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소비패턴 (유럽계)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강함  
(중국계) 주택, 자동차 등 고액 소요 분야 소비력 강함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 급증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민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 BC주 식품업 바이어 상당수가 아시아계임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주류)



<캐나다 주요6대 도시별 인구 및 소수인종 비중>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제품별 상이한 유통망의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제품별로 별도의 유통망이 존재함.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 제품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 존재
  - 가전: Future Shop, Radio Shack, Best Buy, Visions 등
  - 주류: Liquor Store
  - 생활용품: Canadian Tire, Rona, HomeDepot
  - 식료품: Loblaw, SupreStore, SafeWay, SaveOnFood, H-Mart(한인매장) 등
  - 의류: 백화점(The Bay, Sears, Zellers), SportsCheck 등
- 최근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 및 실적 감소 등으로 유통망들이 주류(정부 독점)를 제외한 기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취급 시작
  - 월마트, 코스트코, 홈쇼핑(The Shopping Channel) 등
  - 최근 대형 소매판매점 등도 직수입 및 유통 시작



### III. 한·캐 교류 현황

#### 1. 한·캐 무역 동향

##### □ 수출입 동향

- 한국, 2018년 캐나다 6대 수출·수입국(加 수출의 1.0%, 수입의 1.6% 비중)
  - (수출) 2018년 대加 수출규모, 전년대비 10.1% 증가한 72억 9,000만 달러
  - (수입) 2018년 대加 수입규모, 전년대비 10.8% 증가한 45억 2,500만 달러

##### □ 품목별 동향

- 10대 주력 품목 수출, 전년比 15.5% 증가한 42억 2,800만 달러
  - (주요 수출품) 전화기(180.1%), 형강(82.3%), 파이프(187.9%), 축전지(58.7%) 등 큰 폭 증가  
선박(-48.9%), 자동차 부품(-17.1%), 정유(-7.0%) 등 감소
  - (주요 수입품) 항공기(256.5%), 돼지고기(25.0%), 펄프(18.5%) 등 수입 증가  
알루미늄(-51.4%), 유채유(-13.6%) 수입 감소

#### < 한국의 對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1	8703	승용차	2,116	2,297	8.6	2701	유연탄	1,029	1,201	16.7	
2	8517	전화기	236	661	180.1	2603	동광	561	619	10.3	
3	2710	정유(석유)	386	359	-7.0	2601	철광	267	270	1.1	
4	8708	자동차 부품	327	271	-17.1	8802	항공기	69	246	256.5	
5	4011	타이어	123	122	-0.8	4705	펄프	162	192	18.5	
6	7216	형강	62	113	82.3	4703	화학목재펄프	118	129	9.3	
7	8901	선박	219	112	-48.9	0203	돼지고기	88	110	25.0	
8	8507	축전지	63	100	58.7	7601	알루미늄	222	108	-51.4	
9	8413	액체 펌프	97	98	1.0	1514	유채유	103	89	-13.6	
10	7306	파이프라인	33	95	187.9	0306	수산식품	72	81	12.5	
합계			3,662	4,228	15.5	합계			2,691	3,045	13.2

주: HS Code 4단위 기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2. 한·캐 투자 동향

### □ 캐나다의 對 韓 투자 현황

- (연도별) 2018년 기준 캐나다 기업의 對韓 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전년 (3.89억불) 대비 5.3% 증가한 4.10억불을 기록, 2016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
  - 다만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전년比 47% 감소한 43건 기록. 이는 최근 6년來 최저 수준임(참고: 2012년 38건)

#### < 캐나다의 대한투자 현황 >

(단위 : US\$백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고금액	388	572	1,268	326	389	410
신고건수	60	51	52	72	81	43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 (분기별) 2018년 4/4분기 기준, 캐나다기업의 대한투자(신고기준)는 3건 26.4백만불을 기록, 전년 동기(34건, 63,5백만불) 대비 58.4% 감소
- (업종별) ‘18년도 대한투자의 업종별 순위는 부동산(2.43억불), 기계장비 및 의료기기(0.8억불), 정보통신(0.5억불) 연구개발(0.2억불) 順이며,
  - 특히 기계장비 및 의료기기(+5,407%)와 부동산(+3,245%), 숙박/요식(+2,479%) 업종에서 고성장 기록
  - 정보통신업종의 경우 2017년 역대 최고수준의 투자(1억 불) 유치이후 2018년 0.5억 불로 50% 감소

#### < 캐나다의 대한투자 현황(주요 업종별) >

(단위 : US\$백만)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현황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부동산	5	7.3	9	243.9	80%	3245%
기계장비·의료기기	2	1.4	3	77.1	50%	5407%
정보통신	2	96.7	4	50.3	100%	-48%
연구개발	22	8.0	9	15.3	-59%	90%
숙박·음식점	1	0.1	2	3.1	100%	2479%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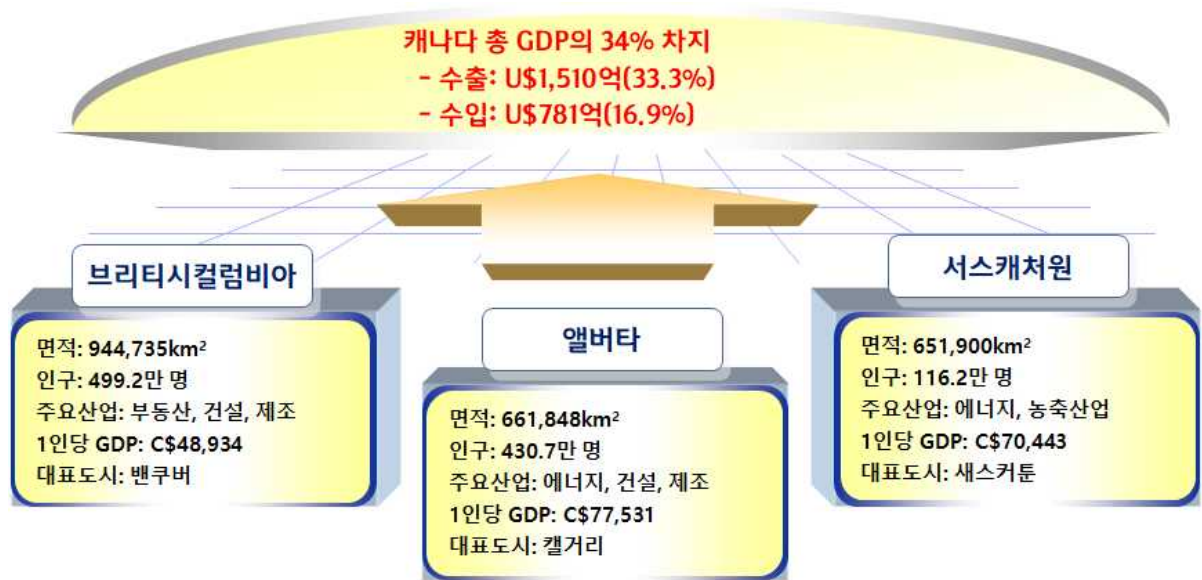


# IV. 캐나다 서부 개황

## 1. 지역현황

### □ 개요

- 캐나다 서부지역 3개주, 브리티시컬롬비아(BC), 앨버타(AB), 서스캐처원(SK)
  - (지리개관)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인구는 980만명 정도로 1/5 수준
  - (경제규모) 실질 GDP C\$6,600억(캐나다 전체 GDP의 34% 차지)



### □ 주요경제지표

- 2018년 加 서부 경제성장률, 캐나다 GDP 평균성장률(2.0%) 상회
  - BC(2.3%) > 앨버타(2.2%) > 서스캐처원(0.9%) ⇒ NBC 예측치 참고

구분	단위	브리티시컬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실질GDP	C\$조	0.24	0.33	0.08
1인당 GDP	C\$	48,934	77,531	70,443
실질경제성장률	%	2.3	2.2	0.9
실업률	%	4.7	6.6	6.1
무역 규모	U\$억	813	1,147	331
상품 수출	U\$억	366	904	240
상품 수입	U\$억	447	24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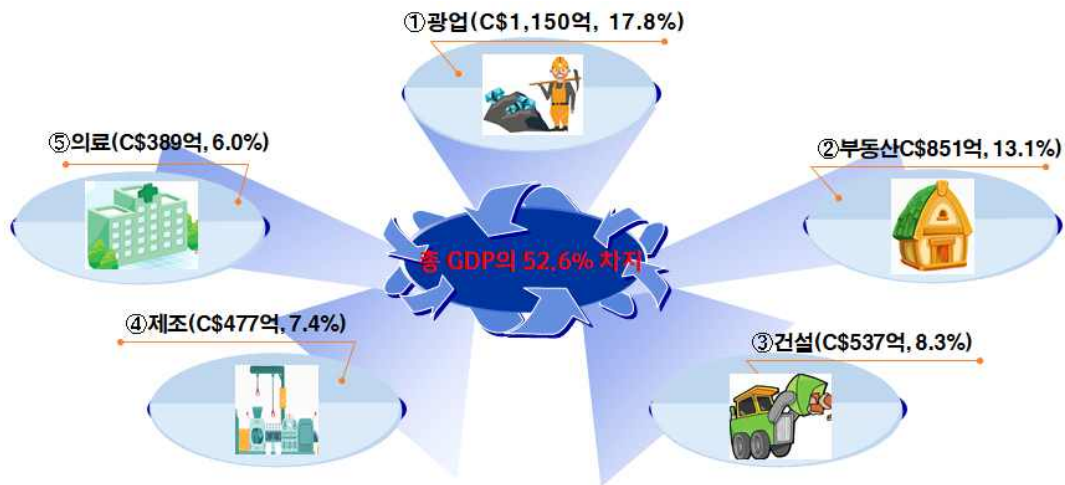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NBC(National Bank of Canada)



## 2. 산업 및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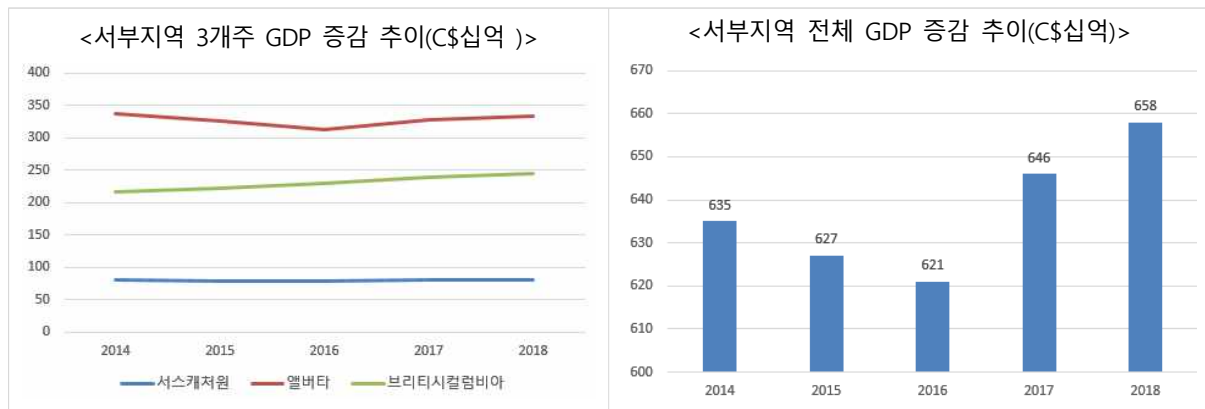
### □ 산업구조

- 산업별 GDP 기여도: 서비스 62.4% vs 상품생산 37.6%
  - (주요 서비스업) 부동산(C\$851억, 13.1%), 의료(C\$389억, 6.0%), 금융(C\$294억, 4.5%)
  - (주요 상품생산) 광업(C\$1,150억, 17.8%), 건설(C\$537억, 8.3%), 제조(C\$477억, 7.4%)
- 상위 5개 산업이 전체 GDP의 52.6% 차지



### □ 경제동향

-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 활기, 기자재 수요 증가
  - 도시 과밀화 및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활발
- IT·소비재·관광업, 고용시장 활성화 선도
  -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관광 활성화 및 IT육성정책으로 관련 인력수요 증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3. 무역현황

#### □ 교역동향

- 전체 무역규모(수출+수입) 전년비 12.1% 증가한 2,294억 달러 → 729억 달러 흑자
  - (수출) '18년 加 서부지역 수출, 전년비 12.8% 증가한 1,511억 달러
  - (수입) '18년 加 서부지역 수출, 전년비 10.6% 증가한 782억 달러
- 지역별로는 BC주가 수입>수출로 3개 주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

#### < 加 서부 3개주 수출입 현황(2018년) >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브리티시컬럼비아	36,661	44,774	-8,113
앨버타	90,464	24,314	66,150
서스캐처원	24,052	9,133	14,919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 주요 수출입 품목

- 加서부 주요 수출 품목 1차 산업 위주 원자재 vs 수입 품목 기계 및 건설장비
  - (주요 수출품) 원유(21.8%), 유연탄(13.2%), 비료(26.3%), 펄프(27.9%) 수출 증가
  - (주요 수입품) 항공기(68.6%), 건설장비(25.2%), 트랙터(18.8%), 기계부품(29.8%) 수입 증가

#### < 加 서부 3개주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1	2709	원유	50,971	62,096	21.8	2710	정유(석유)	5,864	7,474	27.5
2	2711	LPG	9,444	8,975	-5.0	8802	항공기	1,167	1,968	68.6
3	4407	목재	5,964	5,870	-1.6	8703	승용차	1,404	1,590	13.2
4	2701	유연탄	5,042	5,706	13.2	8429	불도저장비	1,030	1,290	25.2
5	3104	비료	3,915	4,945	26.3	8701	트랙터	985	1,170	18.8
6	1001	밀	4,012	4,536	13.1	8471	광학기기/부품	1,051	1,064	1.2
7	4703	화학목재펄프	3,261	4,170	27.9	8517	전화기	961	1,048	9.1
8	1205	유채씨	4,351	3,761	-13.6	2709	원유	1,294	1,022	-21.0
9	3901	폴리에틸렌	3,172	3,368	6.2	8431	기계부품	732	950	29.8
10	2603	동광	2,032	2,232	9.8	8413	펌프	849	893	5.2
합계			92,164	105,659	14.6	합계		15,337	18,469	20.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 한국과의 교역관계

○ 韓, 對서부 수출 '17~'18년 42.8% 증가 → 교역적자 21.2% 감소

- (주요인) 주거 및 SOC 프로젝트 활발 → 건설장비(부품), 기자재 수입수요 증가  
<韓, 對서부 3개주 교역현황(단위: US\$ 백만)>

구분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17~'18)
수출액	1,205	1,075	1,143	1,632	42.8%
수입액	1,947	2,023	2,620	2,796	6.7%
무역수지	-742	-948	-1,477	-1,164	-21.2%

- (지역별) 韓 수출, BC(47.2%↑) > 앨버타(24.3%↑) > 서스캐처원(10.7%↓)  
<韓, 對서부 3개주 수출현황(단위: US\$ 백만)>

구분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17~'18)
BC	888	732	963	1,418	47.2%
앨버타	288	319	152	189	24.3%
서스캐처원	29	24	28	25	-10.7%

- (품목별) 韓 수출, 기계부품(371%↑) > 전화기(212%↑) > 정유(189%↑) > 철강관(183%↑)

### < 한국 對 加 서부 3개주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코드	품목	2017	2018	증감(%)	
1	2710	정유	113	327	189.4	2701	유연탄	1,030	1,200	16.5	
2	7305	철강(파이프)	75	85	13.3	2603	동광	519	550	6.0	
3	7306	철강(파이프)	29	82	182.8	4703	화학목재펄프	118	129	9.3	
4	8517	전화기	23	72	213.0	4705	목재펄프	99	114	15.2	
5	8413	펌프	56	57	1.8	7601	알루미늄	222	108	-51.4	
6	7216	철강(형강)	31	56	80.6	1514	유채유	103	89	-13.6	
7	7210	철강(평판)	39	45	15.4	4407	목재	59	59	0.0	
8	8429	불도저장비	32	42	31.3	4403	원목	81	58	-28.4	
9	8473	기계부품	9	40	344.4	2106	식료품	38	44	15.8	
10	8507	축전지	22	38	72.7	0203	돼지고기	34	43	26.5	
합계			429	844	96.7	합계			2,303	2,394	4.0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V. 2019 시장 포커스

### □ 2019년 캐나다 경제전망 키워드... ‘서부성장’ 과 ‘수출증대’

#### ○ 주요내용(요약)

- (경제전망) 일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고용/투자/소비 성장효과로 견조한 성장 기대
  - \* 2019년 악재요인: 노동력 부족, 기술변화, 무역분쟁, 금리인상
- (성장요건) 한 발 앞선 우수인재 확보 + 신기술 도입 → 창의적 접근 必
  - ☞ 이민자,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고급인력활용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기대
  - ☞ 신기술 도입 기업의 매출 성장가능성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62% 더 높음

#### ① 경제성장

- (키워드) 加 전년대비 성장률 둔화 → 하지만 견조세 유지하며 2%대 성장전망
- (시사점) 서부지역이 국가성장 견인 전망 → BC 전 지역 중 최고 성장률 기대
  - ☞ 유가인상 수준에 따라 앨버타와 서스캐처원 등 他 서부지역 동반 상승 가능

#### ② 환율상승

- (키워드) 캐나다, 美 보다 금리 인상속도 느려 루니(loonie)가치 하락세 당분간 지속
  - ☞ 2019년 캐나다 평균 환율은 C\$1 = US\$0.75~0.80 전망
- (시사점) 상품/서비스 가격 경쟁력 확대 → 수출증가 및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

#### ③ 교역확대

- (키워드) CPTPP 발효, USMCA 협정 체결 → 대외무역 불확실성 제거
- (시사점) CPTPP 역내 관세인하 → 캐나다 총 수출규모 25% 증가 전망

#### ④ 유가회복

- (키워드) 올해 세계 유가(WTI 기준), 배럴당 US\$55~75 회복 예상
- (시사점) 송유관 용량부족 → 캐나다산 원유(WCS) 할인심화 지속 불가피

#### ⑤ 고용증가

- (키워드) '18년 최고 고용창출실적 달성 → 加 실업률 4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시사점) 베이비부머 퇴직 & 청년인력 감소 → 加 근로인구 증가율 10년간 0.2% 수준 유지
  - ☞ 加 중소기업 중 약 40%가 기업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인재 확보 노력 中



## ☐ 캐나다 에너지산업, “2019년은 성장통의 해” ...주목할 5대 이슈

### ○ 주요내용(요약)

#### ① 송유관 건설

- (현황) 연방정부, Trans Mountain 송유관 건설사업 45억 달러에 인수
- (현안) 연방항소법원 원주민과의 사전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송유관 승인결정 기각 → 연방정부, 관계자 공청회 등 협의진행 노력. 하지만 사업추진 일정 불투명

#### ② 원유감산

- (현황) 앨버타, 加 원유(WCS) 할인을 높아 강제 감산 결정 → 1월 1일 발효
- (현안) ①감산 발표 이후 WCS 유가 인상 → 하지만 가격 개선효과 지속여부 불확실  
②투자/무역/일자리 등 경제전반에 부작용 초래 우려

#### ③ 탄소세 도입

- (현황) 모든 주(준주), 2018년 까지 탄소세(또는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의무도입 → 탄소세 세율은 단계적 인상(2022년 까지 탄소 1톤당 C\$50)
- (현안) 일부 지역의 탄소세 시스템 도입 반발 → 연방법원에 정부 재소  
☞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탄소세 강제시행 관련 이의제기 및 연방정부 재소  
☞ 뉴브런즈윅, 매니토바, 탄소세 시스템 추진여부 불투명

#### ④ 유가불안

- (현황) 2018년 하반기 원유 공급과잉으로 WTI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급락
- (현안) 2019년 세계 원유재고량 現 수준 유지전망 → 원유 공급과잉 지속우려  
☞ 다만 지정학적 요인, OPEC 정책, 무역분쟁, 미국세일생산 등 변수가 많아 유가는 언제든 급변 가능성에 유의할 것

#### ⑤ 新에너지 법안(Bill C-69)

- (현황) 加 에너지프로젝트 승인절차 개혁안 추진 → 정부 에너지정책 신뢰 제고  
☞ 법안 주요내용: 검토/승인일정 및 규제기준 개선, 승인절차에 관계자 참여제한 완화, 원주민 공동체 등 주요 관계자와의 초기 사전협의 의무 시행 등
- (현안) 오일업계, 新법안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사업투자감소 악영향” 우려



### ☐ 캐나다 CPTPP 발효...2019년 일본, 베트남 아시아시장 확대 본격화

○ 주요내용(요약)

- (진행경과) 비준완료 6개국, '18년 12월30일 협정발효 → 상호관세인하 개시  
     ☞ 비준완료 국가: 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 (교역효과) 캐나다, CPTPP 역내 관세철폐로 총 수출규모 25% 증가 전망

〈캐나다-CPTPP 주요품목별 교역현황〉

품목	주요 수출상품	주요 교역국	면제 비중
농식품	돼지고기, 쇠고기, 밀, 보리, 가공 식품, 음료, 유제품, 계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94%
산업상품	금속/광물, 플라스틱,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기계, 농기계, 건설 장비, 화장품	호주,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99%
수산물	게, 청어 알, 가재, 새우, 연어, 홍합, 성게, 참치, 굴	일본, 베트남, 호주, 칠레 등	100%
임산물	목재, 합판, 신문용지, 기타종이, 포장용지, 각종 인쇄물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100%

자료원 : Government of Canada

- (주요시장)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 (향후일정) 국가별로 품목별 관세철폐 시점 상이 → 단계적 전면 철폐 추진

〈CPTPP 국가별 관세인하 일정〉

국가	1차 인하	2차 인하	3차 인하~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18년 12월30일	'19년 1월1일	매년 1월1일
일본	'18년 12월30일	'19년 4월1일	매년 4월1일
베트남	'19년 1월14일		매년 1월1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비준완료 시 발효(예정)		

자료원 : Government of Canada

## [별첨] 현지 체류 참고자료

###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2.75(1존)~C\$5.50(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을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존에 상관없이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20부터 이후 54.44미터마다 \$0.10씩 과금됨. 대개 요금의 10%의 금액을 택시기사에서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 주요 명소

###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sup>2</sup>,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렘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다운타운 서쪽 끝자락에 접하고 있어 해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음
- 8월에는 국가별 불꽃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노스밴쿠버 위치. 해발 1,200m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
-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은 스키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정상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을 비롯한 전경 관람 가능 (정상까지 곤돌라 탑승)
- \* 곤돌라는 15분 간격 운행하며, 최대탑승인원 100명 이상

###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개시잭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 북방 12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 스키 관광지
- 스키장은 매년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개장되며 여름에도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위해 산정상까지 곤돌라 운행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시 동쪽으로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황 온천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상호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Kirin Restaurant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Dinesty	604.669.7769	1719 Robson St., Vancouver
일식	Aki	604.682.4032	1368 W. Pender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1066 W. Hasting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1121 Alberni St., Vancouver
	Cactus Club Cafe	604.687.3278	1136 Robson St., Vancouver

□ 주요 한국 식료품점

상호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quitlam)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baby
김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주요 여행사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하나투어	604.321.8384	103-4501 North Road, Burnaby
OK투어	604.893.8687	9920 Lougheed Hwy, Burnaby
KJ투어	778.241.6367	407-3105 Lincoln Ave, Coquitlam



[www.kotra.or.kr](http://www.kotra.or.kr)